

전자상거래에서의 의류치수체계와 웹페이지 구축

김 선 희* (김포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최 혜 선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패션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의복 치수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한 의복 치수체계를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 적용시킨 패션전자상거래용 웹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및 절차로 첫째, 온라인 및 통신판매 의류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의류제품 구입 및 판매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현재 온라인 및 통신판매 의류의 치수 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고; 둘째, 국내 국민체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특정한 신체치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고; 셋째, 패션전자상거래를 위한 의류치수체계를 적용한 패션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및 통신판매 의류제품 구입관련 이용현황 및 치수체계 조사 분석결과 중 의류치수체계와 관련된 내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입한 의류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불만족한 부분이 '재질'이었고, 두 번째가 '치수'였다. 그리고 구입한 의류가 불편해서 입지 않거나 반품하는 경우가 51.2%나 차지하였고, 반품의 이유는 첫 번째가 '치수'의 부적합이었고, 그 다음으로 색상, 재질의 문제였다. 부위별로 불편정도를 살펴본 결과, 상의의 경우 소매길이가 짧거나 길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의의 경우 밑위길이가 치마·바지길이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의 신체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신장, 체중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허리둘레도 80%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가슴둘레는 58.4%, 엉덩이둘레는 35.6%만이 치수를 알고 있었다.
-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치수체계 구축을 위해 신체치수 추정식을 도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치수체계 선택에 필요한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를 이용해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추정해 내었다.
- 3) 실제 웹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패션전자상거래용 의복 치수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기성복 업체 중 한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고, 두 종류의 치수체계(44,55/85,90)에 대해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소비자가 직접 기입한 신체치수 및 앞의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 신체치수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의 치수(신장, 체중,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를 이용해 실제 패션전자상거래용 웹페이지

지 제작에 필요한 의복치수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 4) 패션전자상거래를 위한 치수체계를 적용한 웹페이지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된 알고리즘에 따라 실제 패션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ASP(Active Server Page)를 이용해 동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데이터 베이스(DB)를 이용해 패션 웹페이지를 구현하였다. 또한 실제 운용중인 서버 대신 개인용 웹서버인 PWS(Personal Web Server)를 이용해 웹서버를 구성한 후 ASP를 이용한 패션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다.